<h1>나 혼자만 레벨업-38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rab440d9c1a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8화</p>  
<p>[스킬: 질주 Lv.2]</p>  
<p>액티브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5.</p>  
<p>스킬을 시전하면 이동 속도가 40% 증가합니다. 시전 중 1분당 마나가 1씩 감소합니다.</p>  
<p>'이동 속도가 늘었군.'</p>  
<p>속도 증가 폭이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변했다.</p>  
<p>10퍼센트 차이도 컸다. 질주 스킬은 워낙 자주 쓰는 스킬이니까.</p>  
<p>[스킬: 상급 단검술 Lv.1]</p>  
<p>패시브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없음.</p>  
<p>단검 전용.</p>  
<p>오랫동안 단검을 사용하여 이제 단검을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단검을 사용할 때 33%의 추가 데미지가 적용됩니다.</p>  
<p>단검을 쓸 때 데미지 증가!</p>  
<p>그동안 단검을 주 무기로 다루었더니 단검 전용 스킬이 생겼다.</p>  
<p>'이제 다른 무기를 드는 건 비효율적이게 됐네.'</p>  
<p>그만큼 단검을 쓸 때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것이기도 했다.</p>  
<p>어차피 단검이 손에 익기도 했고, 특히 '카사카의 독니'도 정이 들어서 당분간은 무기를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이었다.</p>  
<p>'그리고 마지막.'</p>  
<p>진우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새로이 생긴 스킬을 확인했다.</p>  
<p>[스킬: 급소 찌르기 Lv.1]</p>  
<p>액티브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70.</p>  
<p>단검 전용.</p>  
<p>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. 적의 급소를 찾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.</p>  
<p>이것도 단검 전용 스킬이었다.</p>  
<p>'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라...'</p>  
<p>그러고 보니 강태식에게 마지막 일격을 넣었을 때와 오늘 하나 남은 좀비를 마무리할 때의 손맛이 비슷했다.</p>  
<p>짜릿하다고 해야 할까?</p>  
<p>단검을 찔러 넣는 순간, 싸움이 끝났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.</p>  
<p>'그게 급소 찌르기였구나.'</p>  
<p>우연히 성공한 기술을 스킬로 배워서 원하는 타이밍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다니!</p>  
<p>가슴이 뛰었다.</p>  
<p>그냥 마구잡이로 단검을 휘두르는 것 외에 마땅한 공격 방법이 없었던 진우에게 공격형 스킬 '급소 찌르기'는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졌다.</p>  
<p>'좋았어!'</p>  
<p>레벨업에다 새로운 스킬까지.</p>  
<p>시작부터 최고였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2일 차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공격 스킬이 추가되어 사냥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원샷 원킬!</p>  
<p>'급소 찌르기'를 맞을 때마다 퍽퍽 쓰러지는 마수들을 보면서, 유진호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.</p>  
<p>'여태 저런 기술을 숨겨 두고 계셨었나?'</p>  
<p>도대체 형님의 실력은 어디가 끝이란 말인가?</p>  
<p>감탄이 절로 나왔다.</p>  
<p>동시에 진우의 실제 랭크가 궁금해졌다.</p>  
<p>'C급 헌터들을 힘들지 않게 잡은 거 보면 B급 이상은 확실한데...'</p>  
<p>직접 물어봤다가는 뒷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 그저 입 벌리고 구경만 하는 수밖에.</p>  
<p>하지만 빠른 사냥에도 단점이 있었다.</p>  
<p>[마나가 부족해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]</p>  
<p>[마나가 부족해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]</p>  
<p>진우가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'또야?'</p>  
<p>진우는 부족한 마나를 채우기 위해 상점에서 구매한 마나 포션을 꺼냈다.</p>  
<p>"그게 뭡니까, 형님?"</p>  
<p>유진호가 호기심을 보였다.</p>  
<p>진우와 같이 있으면서 신기한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지만, 진우가 틈틈이 마시는 파란색 액체의 정체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.</p>  
<p>"이거?"</p>  
<p>진우는 대답을 보류하고 일단 마나 포션의 정보를 읽어 내려갔다.</p>  
<p>[아이템: 마나 포션]</p>  
<p>입수 난이도: B</p>  
<p>종류: 소모품</p>  
<p>마나를 회복할 수 있는 물약입니다. 마시면 마나를 500 회복합니다. 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.</p>  
<p>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.</p>  
<p>'이걸 양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?'</p>  
<p>문득 호기심을 자극했다.</p>  
<p>진우는 마나 포션을 유진호에게 건네주었다.</p>  
<p>유진호의 손에 들어간 마나 포션은 나타날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.</p>  
<p>"마, 마법입니까, 형님?"</p>  
<p>'이래서 양도가 안 된다는 거였군.'</p>  
<p>새로운 사실을 알았다.</p>  
<p>양도되지 않는 아이템은 남의 손에 닿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린다.</p>  
<p>그럼 손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어떨까?</p>  
<p>진우는 상점을 열어 포션 하나를 더 샀다.</p>  
<p>그런데 이번엔 항상 사던 마나 포션이 아니라 붉은색 액체가 담긴 힐링 포션이었다.</p>  
<p>구매를 확정하자 진우의 손에 스르륵 포션이 나타났다.</p>  
<p>"혀, 형님! 진짜 신기합니다. 액체가 붉은색으로 바뀌었네요!"</p>  
<p>유진호는 마나 포션이 사라지고 힐링 포션이 나타난 걸 무슨 마술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. 포션의 종류를 바꾼 이유는 간단했다.</p>  
<p>'타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.'</p>  
<p>진우는 유진호의 자세를 낮추었다.</p>  
<p>"입 벌려 봐. 위쪽을 보고."</p>  
<p>"이, 이렇게요, 형님?"</p>  
<p>"좋다. 그 자세로 가만히."</p>  
<p>진우는 힐링 포션이 담긴 병을 기울였다.</p>  
<p>곧 붉은 액체가 유진호 입으로 흘러들어 갔다.</p>  
<p>조르륵.</p>  
<p>순간 유진호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어? 이게 뭡니까, 형님?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?"</p>  
<p>장시간 짐꾼 노릇을 하느라 지쳐 있던 유진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좋아졌다.</p>  
<p>진우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'이렇게 주면 효과가 있네.'</p>  
<p>좋은 걸 알았다.</p>  
<p>이제 힐러가 없어도 근처에 부상자가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.</p>  
<p>후에 많은 도움이 될 터였다.</p>  
<p>"피곤하면 말해. 언제든지 더 있으니까."</p>  
<p>쓸데없이 퍼 주는 게 아니다.</p>  
<p>짐꾼이 지쳐서 발이 느려지면 사냥 속도 또한 떨어지니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손해였다.</p>  
<p>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발언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유진호에게는 의미가 남달랐던 모양이다.</p>  
<p>"혀, 형님..."</p>  
<p>"가자."</p>  
<p>유진호는 진우의 기상천외한 능력과 자신의 상태까지 챙겨 주는 세심함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앞서가는 진우의 뒤를 따랐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3일 차.</p>  
<p>"참. 이거 받으세요, 형님."</p>  
<p>유진호가 장비 가방을 뒤적이더니 도장이 동봉된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.</p>  
<p>"이게 뭐냐?"</p>  
<p>"그제, 어제 이틀분 마정석 정리한 돈입니다, 형님."</p>  
<p>그걸 왜 미리 말 안 하고 마수가 우글거리는 던전 안에서 건네주는 거냐는 불만도 잠시.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6억?'</p>  
<p>통장을 펼쳐 보니 엄청난 거금이 찍혀 있었다.</p>  
<p>"여태까지 마정석으로 번 돈을 전부 다 나한테 넘기겠다고?"</p>  
<p>유진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"예, 형님. 전 돈이 필요해서 레이드를 하는 것도 아니고, 사실 따지고 보면 마수들은 전부 다 형님이 잡으신 거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염치없이 그 돈을 나눠 달라고 하겠습니까?"</p>  
<p>유진호는 칭찬을 기대하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거렸다.</p>  
<p>'어쭈... 이 자식 봐라?'</p>  
<p>요 며칠 같이 지내면서 유진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.</p>  
<p>전에는 무서워도 억지로 참고 따라오려는 느낌이 강했다면, 지금은 진짜 존경하는 선배를 대하는 동생처럼 굴었다.</p>  
<p>'가만 보니 귀여운 구석도 있네.'</p>  
<p>진우는 피식 웃음 지었다.</p>  
<p>"진짜 가져도 되는 거지?"</p>  
<p>"이 유진호가 한 입으로 두말할 동생으로 보이십니까, 형님?"</p>  
<p>진우가 웃으며 통장을 흔들었다.</p>  
<p>"알겠다. 이건 고맙게 쓸게."</p>  
<p>"감사합니다, 형님!"</p>  
<p>유진호는 90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혔다.</p>  
<p>이건 뭐, 도대체가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건지 헷갈리는 광경이었다.</p>  
<p>한편 던전의 바깥쪽.</p>  
<p>팀원들에게도 기다리는 요령이 생겼다.</p>  
<p>유진호 대장과 성진우 보조(?)가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헌터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리를 펴고 각자 할 것을 즐겼다.</p>  
<p>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은 고스톱팀이었다.</p>  
<p>자리 하나에 다섯 명이 둘러앉았다.</p>  
<p>"이번 레이드가 벌써 몇 번째죠?"</p>  
<p>"어디 보자... 그제 세 번 돌고, 어제 두 번, 오늘 또 두 번이니까 이제 일곱 번째네."</p>  
<p>"그 사람들 이런 페이스로 던전을 돌아도 괜찮은 걸까요? 원래 레이드 한 번 뛴 공격대는 일주일 정도 쉬는 게 보통이잖아요."</p>  
<p>"아이고, 그 사람들 걱정은 하지를 말어. 매번 나올 때 보니까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더만. 우리야 통장에 꼬박꼬박 3백씩 쌓이니 좋지 뭘. 자네 차례야, 얼른 내."</p>  
<p>"아, 네."</p>  
<p>확실히 진우와 유진호는 쉴 새 없는 스케줄 속에서도 지친 기색 한 번 없었다.</p>  
<p>그들은 모르지만 모두 포션의 힘이었다.</p>  
<p>덕분에 약속했던 19번의 레이드 중 벌써 1/3 지점을 넘어가고 있었다.</p>  
<p>잠시 뒤 게이트의 검은 막이 울렁이더니 두 사람이 튀어나왔다.</p>  
<p>"엇, 저기 대장님 나오시네요."</p>  
<p>"다들 일어납시다."</p>  
<p>헌터들은 알아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.</p>  
<p>"거기 짐 챙겨요."</p>  
<p>"주무시는 분들 깨우고요, 잃어버린 거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."</p>  
<p>헌터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.</p>  
<p>자다 깬 헌터도 벌떡 일어나 이동할 준비를 했다.</p>  
<p>"갑시다!"</p>  
<p>다들 이 기이한 레이드 방식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인근에 위치한 백호 길드 사무실.</p>  
<p>제2관리과 과장 안상민은 아침부터 목에 핏대를 세웠다.</p>  
<p>"현 대리! 당장 신입들 훈련이 내일인데 아직도 게이트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!"</p>  
<p>대리 현기철은 고개를 푹 숙였다.</p>  
<p>"죄, 죄송합니다, 과장님. 인근에 C급 게이트가 생길 때마다 손쓸 틈도 없이 낙찰받아 버리는 팀이 있어서요."</p>  
<p>"뭐? 아니 그럼 돈 좀 더 얹어서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. 우리 길드에 돈이 없어, 사람이 없어? 도대체 뭐가 문제야?"</p>  
<p>"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..."</p>  
<p>"어허!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대답이야!"</p>  
<p>안상민의 호통에 제2관리과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.</p>  
<p>안상민도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오랜만이었다.</p>  
<p>백호 길드가 어떤 곳인가?</p>  
<p>대한민국 5대 길드 중 하나로 불리는 곳이다.</p>  
<p>그런 만큼 직원들의 실력 또한 남달랐다.</p>  
<p>현기철 대리도 입사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는 실수 하나없이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 왔던, 우수한 직원이었다.</p>  
<p>그런데 하필 신입들이 훈련해야 할 게이트를 예약하지 못하다니!</p>  
<p>그건 큰 실수였다.</p>  
<p>안상민 과장이 관리하는 제2관리과는 소속 헌터들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제1관리과와는 다르게 신입을 뽑고 훈련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.</p>  
<p>"이, 이것 좀 봐 주세요, 과장님!"</p>  
<p>현기철은 울먹이며 노트북을 내밀었다.</p>  
<p>"이게 진짜."</p>  
<p>한바탕 더 퍼부으려던 안상민이 노트북에 적힌 숫자들을 보고 입을 쩍 벌렸다.</p>  
<p>"이, 이억오천? 고작 C급 게이트 공략 허가에 2억 5천을 쓴 놈들이 있다고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